

碩 士 學 位 論 文

낙태에 대한 윤리적 고찰  
-기독교적 관점에서-

群山大學校 教育大學院

教育學科 倫理教育專攻

姜 年 遠

指導教授 林 圭 廷

2004年 2月

낙태에 대한 윤리적 고찰  
-기독교적 관점에서-

指導教授 林 圭 廷

이 論文을 教育學碩士學位  
請求論文으로 提出함

2003年 11月

群山大學校 教育大學院

倫理教育專攻

姜 年 遠

姜年遠의 教育學碩士學位  
請求論文을 認准함

2003年 12月

學位論文審査委員會

審査委員長	印
審査委員	印
審査委員	印

群山大學校 教育大學院

## 목 차

I. 서론 .....	1
1. 문제 제기와 연구의 동기 .....	1
2. 낙태의 일반적 이해 .....	4
3. 태아의 인간성(도덕적 지위)에 관한 일반적 주장 .....	12
II. 낙태 찬성론자의 주장 .....	17
1. 인간성을 위해 제시한 조건들 .....	17
2. 인간존재의 시작 시점에 관한 견해 .....	19
3. 신학적 근거 .....	22
III. 낙태 반대론자의 주장 .....	27
1. 철학적 근거 .....	27
2. 과학적 근거 .....	28
3. 신학적 근거 .....	33
IV. 낙태에 대한 개신교의 입장 .....	37
1. 자유주의적 입장 .....	37
2. 보수주의적 입장 .....	39
3. 절충적 입장 .....	40
V. 결론 .....	43
☆ 참고문헌 .....	49
☆ Abstract .....	53

## I. 서론

### 1. 문제 제기와 연구의 동기

1982년 뉴욕의 저명한 의사는 태어나지 않은 쌍둥이 가운데 한 남자아이의 심장에 바늘을 찔러 아이가 죽기에 충분한 만큼 피를 뽑아냈다. 이 아이의 부모는 쌍둥이 가운데 한 아이가 장애아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저 “완전한 아이”만 살기를 바랐던 것이다. 많은 의사들은 이 사건을 의학계의 이정표라고 환영했다. 그 해 미국에서는 160만 명 이상의 태아들이 어머니 태속에서 죽임을 당했고 이 아이도 그 중에 한 명이었다.<sup>1)</sup>

최근 낙태를 시술한 산부인과 의사를 살해한 자의 사형이 집행되었다.<sup>2)</sup> 미국 AP통신은 “이번 사형은 미국 역사상 유례가 없는 판결”이라고 논평하였고, 최후 진술을 통해 그는 “여전히 나의 행동이 성경에 입각한 행동이었으며 그러나 재판 결과에 승복 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형이 집행되어 낙태주의자와 반 낙태주의자간의 갈등은 더욱 고조되었다.<sup>3)</sup>

우리나라 최근 남·여 출생 비율은 첫 아이의 경우 105:100인데 비해 둘째의 경우 121:100, 셋째의 경우 141:100, 넷째의 경우 242:100이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 남아선호사상이 얼마나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고 그 결과 얼마나 큰 낙태라는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지를 잘 드러내고 있다.<sup>4)</sup>

---

1) Francis A. Schaeffer, *Whatever happened to the human race?* (Westchester, IL : Crossway Books, 1982), 3쪽.

2) 「국민일보」, 2003. 9. 4.

3) 「기독신문」, 2003. 9. 3.

생명과 관계된 오늘의 윤리적 갈등 대립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생명과 관계된 윤리적 갈등 대립의 논변을 살펴보면 두 가지 문제가 핵심적으로 나타나는데, 개인 생명 존중을 우선으로 여기는 ‘생명우선주의’와<sup>5)</sup> 공익을 지향하는 ‘개인권리 선택우선주의’<sup>6)</sup>이다. 개인권리 선택우선주의자들은 인간을 고도의 두뇌를 가진 고등동물에 지나지 않는 존재로 보고 낙태와 영아 살해, 안락사, 시험관 아기, 태아실험, 유전자 조작, 인간 복제를 통해서라도 인류의 행복과 보다 나은 인류로의 개선, 진보를 위해 여러 형태의 생명 파괴행위도 서슴치 않고 있다.<sup>7)</sup>

그 중 현재 벌어지고 있는 여러 형태의 생명 파괴 행위 가운데서도 낙태는 그 잔인성에 있어서나 규모에 있어서 나치의 대학살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심각한 수준이다. 매년 세계적으로 5,500만 명 이상의 생명들이 가장 안전한 요람인 엄마의 뱃속에서 사지가 찢기고 머리와 몸이 조각나는 차마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잔인한 방법으로 낙태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약 20초마다, 영국에서는 3분마다 낙태가 자행되고 있고, 미국에서는 매년 약 200만 건의 낙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소련에서도 매년 약 1천만 건의 낙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국에서는 공식적인 ‘하나 낳기’ 정책으로 낙태가 강요되고 있다.<sup>8)</sup> 한국에서는 한해 최소한 150만 명의 생명이 낙태로 태어나기도 전에 사라졌고, 이 숫자를 한 해 출생하는 신생아 60만 명과 비교할 때 신생아 1명당 낙태 2명이나 된다. 이는 미국의 8배로서 임신 3명 중 1명 만 살아남는다는 이런 가공할 현실에 대해 아직 우리나라는 그 심각성조차 인식하지 못한 실

4) 조남훈, “성감별과 여아낙태”, (한국 보건사회 연구원, 1998), 5쪽.

5) 피터 싱어, 『실천윤리학』, 황경식·김성동 역, (철학과 현실사, 1994), 159쪽.

6) 바루흐 브로디, 『응용윤리학』, 성인경 역, (그리심 출판사, 1999), 8쪽.

7) 신성자, 『낙태에 대한 성경적 과학적 고찰』, (그리심 출판사, 1999), 9쪽.

8) Richard Winter, 『사람입니까?』, 성인경 역, (일지각, 1993), 78쪽.

정이다.

미국에서 낙태 논쟁을 한 윤리학자가 “오늘의 미국의 문화적 갈등을 규정짓는 논쟁”으로<sup>9)</sup> 간주했듯이 낙태 문제는 단순히 낙태에 관한 견해 차이의 문제가 아니라, 물질만능주의, 향락주의, 개인적 이기주의, 성취 지상주의, 여권운동 등 가치관, 가족관, 성문화를 포함하는 문화전반이 관계된다.

우리 사회는 물질만능주의가 만연해 있고 성윤리가 극도로 타락해 있어 온갖 폭력과 범죄·살인이 매일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간의 본래적 가치를 경시하는 비도덕적인 사회로 달음질치고 있다.<sup>10)</sup> 그러나 이러한 사회 풍토 속에 처해 있지만 생명은 가장 소중한 것이며 또한 그것의 낙태문제는 신중하고도 또 신중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 더욱이 낙태가 태아 실험, 영아 살해, 안락사와도 연결되는 문제라는 점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낙태로 인해 태아 실험이 가능하고 낙태를 정당화하는 이유들이 영아 살해와 안락사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낙태문제는 인간 생명과 관계된 윤리적 문제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그리고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논자는 교회를 담임한 목사로서 임신에 따른 여러 문제를 상담하였다. 낙태를 찬성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무턱대고 반대만 할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진 적이 솔직히 한 두 번이 아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보고 기독교 윤리적 입장에서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해 보려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본 논문에서 사용된 연구방법은 낙태에 관한 여러 문헌들을 비교 분석하면서 기독교적 관점에서 연구할 것이다.

---

9) Christianity Today, February 2003, 33쪽.

10) 박원기, 『기독교 사회 윤리 이론과 실제』, (이화여대출판부, 1995), 188쪽.

I 장 서론에서는 낙태의 일반적 이해를 위해 낙태의 역사와 낙태허용을 합법화 한 나라들을 살펴는데, 피터 싱어의 책 「실천윤리학」을 주로 참고하였고, 낙태의 양상들을 살펴기 위해 여러 통계표들을 인용할 것이다. 특히 낙태의 찬·반 문제는 태아의 인간성 즉 도덕적 지위에 관해 어떠한 입장을 취하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낙태를 살인이라고 규정하기 전에 태아가 인간임을 주장하는 근거부터 밝혀야 하기에 니엘 칼라한(Daniel Callahan)의 주장을 참고하였다.

II 장에서는 낙태 찬성론자들의 주장을 살펴는데, 그들은 수정 순간부터 생명으로 보는 견해를 부정하면서 인간 시작 시점에 대해 여러 관점을 제시하고 있기에 낙태논쟁의 핵심쟁점인 태아의 인간성 문제를 살펴보겠다. 그리고 낙태 찬성자들이 제시하는 성경의 근거로 폰 라드(Gerhard Von Rad)가 주장하는 신적 생명력이 질료적인 신체에 들어감으로 비로소 인격화되고 개별화되었다는 주장을 따라 태아를 불안정한 인간으로, 또한 태아를 잠재적인 인간으로 보면서 임신한 여성의 생명을 구하는 조건으로 낙태를 적극 찬성하는 이들이 제시하는 신학적 근거를 살펴보겠다.

III 장에서는 낙태 반대론자들의 주장을 살펴는데, 발달 과정에서 소위 ‘마술적 순간’을 주장하는 찬성론자들의 주장에 맞서 철학적, 과학적 근거를 살펴면서 인간 존엄성에 대한 신학적 주장을 살펴겠다.

그리고 IV 장에서는 낙태에 대한 개신교의 입장을 정리하는데 자유주의적 입장과 근본적인 반대를 주장하는 보수주의적 입장과 양 주장을 수용하려는 절충적 입장이 있음을 살펴보며,

끝으로 V 장에서 본 논문의 요약과 논자의 결론으로 맺고자 한다.

## 2. 낙태의 일반적 이해



## 1) 낙태의 역사와 허용의 근거

낙태(abortion)의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낙태란 태아가 모체 외에서 독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기 전에 인위적으로 임신을 중절시키는 것이다”<sup>11)</sup>

한춘기에 의하면 “낙태”의 개념이 라틴어 ‘abortio’에서 태아를 계획적으로 죽이려고 시도되지 않았으나 조기출산 된 ‘자연유산(miscarriage)’의 뜻과, 근대 독일어 ‘Abtreibung’에서 태아를 계획적으로 죽이려고 시도된 ‘인공유산(abortion)’의 뜻을 가진 두 용어에서 유래되었으며 현재 “낙태”라는 말은 자연유산을 의미하지 않고 ‘인공유산’의 의미로만 사용된다고 한다.<sup>12)</sup> “낙태란 태아가 모체 외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자궁내의 태아를 죽여 임신을 중단시킬 목적으로 태아와 그 부속물들을 인위적으로 모체 외부로 배출시키는 모든 인위적 조작에 관한 것”이라고 우리나라 법률도 말하고 있다.<sup>13)</sup>

고대 사회에서는 낙태행위가 도덕적 비난을 받지 않았고 범죄로 규정되지 않았다. 초기 로마시대에는 낙태가 가족의 유산을 상속받는 상속인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 이루어졌으며, 고대 그리스에서는 낙태가 가족수를 통제하는 인구 정책의 수단이 되었다.<sup>14)</sup> 히포크라테스 선서에도 낙태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아서도 고대 사회에서도 낙태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sup>15)</sup>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그들의 이상사회를

---

11) Archibald Sutherland Ducan, Reginald Dunston, and Richard Burkewood Welborn(ed.), *Dictionary of Medical Ethics*(London: Dalton, Longman & Todd Ltd, 1981), 맹용길, “성경적 입장에서 본 인공유산의 문제”, 『낙태』, (서울: 두란노서원, 1990), 3쪽 재인용.

12) 한춘기, 『신학적 윤리적 입장에서 본 인공유산』, (기독교교육연구소, 1994), 55쪽.

13) 모자보건법(1973 2월 8일 법률 제2541호) 제2조 4항.

14) 강신철, “낙태에 관한 기독교 윤리적 연구”, (장로회 신학대학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5쪽.

건설하는 데 있어서 일부상황, 주로 가족 규모를 제한시키기 위해 낙태를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보았다.<sup>16)</sup>

낙태죄가 형법상의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은 기독교사상의 영향과 생산수단으로서의 인구확보의 필요성에 기인한다. 그래서 서기 200년경 시베루스(Severus) 제(帝)에 이르러서 낙태행위를 처벌하기 시작하였다.<sup>17)</sup>

산업혁명 이후 급속히 변한 서구 사회에서는 어느 정도 공개적으로 낙태가 실시되었으나 낙태로 인한 사망과 의학적 부작용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어 1803년 영국에서 처음으로 낙태를 법으로 금지시키는 법이 제정되었고, 뒤이어 프랑스가 1810년에, 미국이 1868년까지 전체 주에서 낙태를 법으로 금지시켰다.<sup>18)</sup>

그러나 낙태에 대한 논쟁이 격렬해지면서 낙태의 빈도가 높아진 것은 1950년대부터이며 1980년대에 와서는 전 세계 절반이 넘는 나라들이 낙태 금지를 풀어 자유로이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sup>19)</sup> 우리나라 역시 1960년대부터 낙태를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이 종교계와 학계의 반대에 부딪혀 왔으나 1973년 2월에 ‘모자보건법’이 제정되면서 사실상 낙태가 허용되었다 할 수 있다.

---

15) “나는 나의 능력과 판단에 따라 나의 환자에게 이롭다고 여긴 처방을 따르고 심신에 해롭고 유해한 어떤 것으로부터 멀리할 것이다. 나는 비록 부탁을 받을지라도 어느 누구에게도 생명에 치명적인 약을 주지 않을 것이며, ..... 나는 어떠한 여인에게도 낙태를 유발할 피임용 팻서리를 주지 않을 것이다”

16) 캐머런 심스, 햇빛성경연구소 역, 『낙태 : 위기에 처한 기독교의료윤리』, (서울: 햇빛출판사, 1993), 65쪽.

17) 이영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고찰”, 『아세아 여성연구』 제25집, (숙대 아시아 여성문제 연구소, 1986), 265쪽 재인용.

18) 한국가톨릭의사협회(편), 『의학윤리』, (서울: 수문사, 1984), 230쪽.

19) 강신철, 앞의 책 6쪽. 일본이 낙태를 최초로 1949년에 합법화하였고, (구)소련이나 동부 유럽들이 법으로 허용하였으며, 낙태를 처음으로 금지 시켰던 영국도 164년만에 1967년 허용하였고 (구)서독이 1970년, 미국은 1973년 ‘Roe vs Wade’ 사건의 판결을 통해 사실상 낙태를 합법화하였다.

그런데 낙태가 왜 문제가 되는가?

사람에 따라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 수도 있으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임신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인간의) 정자와 난자의 결합체인 수정란의 다른 한 극단 - 즉 출산 - 에 인간이 있기 때문이다. 즉 '인간 존재의 생성은 점진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낙태는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sup>20)</sup>

우리가 몸속의 종양을 떼어 내는데 도덕적 이유를 생각하지 않지만 수정체를 제거하는 데는 윤리적 논의가 치열한 것은 바로 임신의 다른 끝이 바로 출산 - 인간의 탄생 - 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 2) 낙태의 양상

과연 허용 한계 내에서 낙태가 이뤄지고 있는가?

형법 269조에서 낙태를 금하고 있으나 모자보건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허용 한계를 정하고 있다.

모자보건법 제14조 - [인공임신중절의 허용 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 장애나 신체 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 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

20) 피터 싱어, 『실천윤리학』, 황경식·김성동 역, (서울: 철학과 현실, 1994), 149쪽.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인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심신 장애로 의사 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경우에는 부양 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에 갈음할 수 있다.

모자보건법 제15조 -[인공임신중절 수술의 허용 한계]

① 법 14조 규정에 의한 인공임신중절 수술은 임신한 날로부터 28주일 이내에 있는 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② 법 14조 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할 수 있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 장애나 신체 질환은 다음과 같다,

1. 유전성 정신분열증
2. 유전적 조울증
3. 유전성 간질증
4. 유전성 정신박약
5. 유전성 정신박약
6. 혈우병

7. 현저한 범죄 경향이 있는 유전성 정신장애

8. 기타 유전성 질환으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현저한 질환

③ 법 제1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할 수 있는 전염성 질환은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풍진, 수두, 간염, 후천성면역결핍증 및 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1항의 전염병을 말한다.

위에서 본대로 형법 제269조는 낙태를 금하고 있으나 모자보건법 제 14조는 낙태가 허용되는 한계를 규정하고 있지만, 한 해 출생 인구 80만 명을 훨씬 뛰어넘는 약 150만 명 정도가 낙태된다는 보고를 보면, 낙태가 정당하지 않은 사유에 의해 이뤄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가 있겠고,<sup>21)</sup> 미국의 경우 한 해 180만 명이 출생하고, 160만 명이 낙태된다는 것을 볼 때 인구수에 비례하여 우리나라 낙태율이 얼마나 심각한지 추정해 볼 수 있다.<sup>22)</sup>

다음은 우리나라 낙태의 심각함을 알아보기 위해 낙태에 관한 여러 형태별 조사표를 옮기고자 한다.

원치 않는 임신	산모건강	경제문제	약물중독	딸이어서	기타
58.3	14.8	10.6	8.4	5.0	2.9

<표 1> 낙태동기 비교표<sup>23)</sup> (조사자: 1098명, 단위 : %)

여기서 기타라 함은 모자보건법으로 정한 정당한 낙태사유이다.

이유 순위	기 혼	미 혼
1	계획성 없는 임신	사회적 비난이 두려워
2	남아 선호	상대방과 관계 악화
3	경제 문제	장래 계획 지장
4	터울 조절	경제 문제

<표 2> 기혼과 미혼의 낙태 이유<sup>24)</sup>

21) 김중호, 『의학윤리란 무엇인가?』, (바오로 딸, 2003), 37쪽.

22) J. C. Willke 부부, 『낙태』. 정길용 역, (낙태반대운동연합, 1997), 106쪽.

23) <http://www.prolife.or.kr>

이흥균·유태환씨는 위의 자료에서 낙태하는 기혼 여성 중에 1~3회까지 낙태를 반복하는 경우가 거의 60%에 이르는 것으로 보아서 낙태를 ‘가장 편리한 피임법’으로 악용하고 있으며, 모자보건법에 의한 낙태허용의 정당한 이유는 거의 없다고 밝히고 있다.

19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109. 6	110. 2	109. 0	110. 0

<표 3> 출생성비<sup>25)</sup> (여자 100 : )

연도	전체	첫째아이	둘째	셋째	넷째
1990	116.9	108.7	117.2	191.0	224.4
1991	112.9	106.1	112.8	184.7	206.3
1992	114.0	106.4	112.8	195.7	232.4
1993	115.6	106.6	114.9	206.5	253.4
1997	108.2	105.1	106.3	133.5	153.7
1998	110.1	105.9	108.0	144.7	153.7
1999	109.6	105.6	107.6	141.8	154.5

<표 4> 연도별 출생순위별 출생성비 1990-1993, 1997-1999 <sup>26)</sup>

세계인구의 성비는 여자 100명 당 남자 106.0 명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위 통계자료를 보면 전체 성비가 해마다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둘째, 셋째, 넷

24) 이흥균·유태환, “인공유산 실태에 관한 연구” (대한가족협회, 1996년 5월).

25) “인구동태 조사”, (통계청 - 2002년 보고서).

26) “인구동태통계연보, 1990~1999”, (통계청 - 2002년 보고서).

째로 갈수록 남자의 비율이 높음을 본다. 이는 1960년대까지는 평균 6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과정에서 1~2명의 아들을 둘 확률이 매우 높았는데 최근 출산율이 1.5명 정도 상황에서 아들을 둘 확률이 그때보다 3~4배나 어려워졌기 때문에 인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두는 부모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위의 <표 3, 4>에서 보듯 남자 아이 출산을 위해 인위적으로 낙태를

연도	남자 (천명)	여자 (천명)	성비
1995	2,184	2,155	101. 3
1996	2,238	2,083	107. 4
1997	2,287	2,006	114. 0
1998	2,313	1,932	119. 7
1999	2,303	1,893	121. 7
2000	2,263	1,896	119. 4

실시했음을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표 5> 연도별 결혼연령 인구의 대비.<sup>27)</sup> (남자 25~29세, 여자 20~24세)

위 통계표를 참고하여 성비의 차이는 인공유산의 결과이며, 결혼의 어려움으

횟수/종교	없음	불교	천주교	기독교	계
없음	178(67.4)	58(53.7)	40(60.6)	141(65.8)	417(64.0)
1회	41(15.6)	14(13.0)	32(15.0)	32(15.0)	105(16.1)
2회 이상	45(17.0)	36(33.3)	41(19.2)	41(19.2)	130(19.9)
계	264(100.0)	108(100.0)	214(100.0)	214(100.0)	652(100.0)

로 이어져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소지가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6> 종교별 낙태 횟수<sup>28)</sup>

단위 : 명 (%)

27) 통계청 인구계획위원회,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인구분야 계획.

여기에서는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가가 낙태 행위와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항	전체	낙태 경험자	낙태 무경험자
절대 안된다	129(52.9)	46(37.4)	83(68.0)
경우에 따라 허용	116(47.3)	77(62.6)	(39)(32.0)

<표 7> 낙태 허용도<sup>29)</sup> (%)

위 통계는 기독교인만 상대로 조사한 설문 조사인데도 경우에 따라 허용될 수 있다는 응답자가 반절에 가까운 것을 볼 때, 이처럼 우리 사회가 얼마나 깊은 죽음의 문화 속에 잠식당해 있는지 잘 알 수 있다.

### 3. 태아의 인간성(도덕적 지위)에 관한 일반적 주장

인간성에 대한 논쟁은 낙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인간의 생명이 언제 시작되는가?” 라는 질문에 다니엘 칼라한(Daniel Callahan)은 세 가지 입장을 들어 대답해 보려고 시도한다.<sup>30)</sup> 여기서는 그의 분류를 따랐고, 그 분류에 따라 다른 사람의 주장도 열거하겠다.

#### 1) 유전학파(the genetic school)

28) 한국 형사정책 연구원, “낙태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1991), 140~141쪽.

29) 고희정, “낙태방지를 위한 기독교 기혼여성 교육 프로그램 설계”, (<http://sangsaeng.org/>).

30) Daniel Callahan, *Abortion: Law, Choice and Morality* (N. Y.:Macmillan Company, 1970). 11쪽.



유전학파는 인간의 유전자가 형성되는 순간을 인간이 형성되는 시기로 본다.<sup>31)</sup> 인간을 사람의 유전적 암호(genetic code)와 동일시 시켜 인간의 유전인자를 지닌 모든 존재를 사람으로 규정한다. 모든 사람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얻은 성품은 수정 순간에 형성되므로 유전자와 염색체가 머리카락의 색깔에서부터 인체의 화학적 성질을 통제하는 선(glands)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결정짓는다고 보는 입장이다.<sup>32)</sup> 이는 태아가 임신되는 순간부터 인간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게다가 발달과 성장은 단지가 개별적인 태아의 유전인자에 입력된 것을 명백하게 드러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sup>33)</sup> 수정을 인간이 되는 시기로 보는 카톨릭을 중심으로 하는 보수주의자들의 관점에 의하면 일단 수태되면 그 존재는 곧 인간이 될 가능성을 지닌 까닭에 성인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생명에 관한 권리를 가진 태아는 인간 생명이기 때문에 낙태는 정당화 될 수 없다고 한다. 대부분의 낙태 반대자들은 이 주장을 따른다.<sup>34)</sup>

## 2) 발달학파(the development school)

발달학파의 관점에서는 태아가 인간으로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수정 순간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발육기간이 경과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발달학파 사이에도 인간 생명으로서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일정한 시점에 대해서 일치된 합의점을 제시하지 못하고 수정 순간부터 출산까지의 임신과정에 있어서 여러 단계들, 심지어 출생 후 1~1.5년까지 다양한 시점들이 한 인간의 시작 순간으로 제시되어 있다.<sup>35)</sup> 임신에서 출산에

---

31) 위의 책, 11쪽.

32) 맹용길, 『성경적 입장에서 본 인공유산의 문제』, (서울: 두란노서원, 1990), 9쪽.

33) 김중호, 『의학윤리란 무엇인가?』, (부산: 바오로 딸, 2003), 3쪽.

34) Thomas A Mappes, Jane S. Zembaty, *Social Ethics*, (San Francisco : Mcgraw-Hill Book Company, 1982), 3쪽.

이르는 9개월간 태아(fetus)는 변화와 발전을 한다. 낙태찬성자들은 대부분 이 주장을 따른다.<sup>36)</sup> 따라서 아래에서 발달학파들이 주장하는 인간 생명으로서의 태아가 성립되는 대표적인 시점 주장에 대해 열거해보면 다음과 같다.

① 태아가 모체에 착상되는 시점이 인간이 되는 시점이라는 주장으로, 수정 후 7일째 수정란은 자궁내막에 도착해 안쪽으로 함입(蝕入)되기 시작해 수정 14일 정도에 착상이 완료되는데 이때를 생명의 시작으로 보는 견해이다. 즉 수정란이 자궁내막에 완전히 안착했다는 말은 어머니와 아기의 구체적인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함을 의미하는데 “인간됨은 관계를 맺는 능력에서 비롯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이 주장을 지지한다.<sup>37)</sup> 낙태 반대론자인 미국의 카톨릭 신학자 누넨(John T. Noonan)은 「역사에서 거의 절대적인 가치」라는 논문에서 난자와 정자의 잠재력에 대하여 논하기를 “하나의 정자를 파괴하는 것과 태아를 파괴하는 것의 차이점은 정자 한 마리가 이성과 감정을 지닌 존재가 될 확률은 2억분의 1인 반면, 태아는 이미 고통에 민감할 뿐 아니라 세상에 태어날 확률이 80%나 된다는 사실”이라고 하였다.<sup>38)</sup> 하지만 피터 싱어(Peter Singer)는 최근 발달한 의학 기술은 누넨이 제시한 태아 생존율 80%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배아가 자궁벽에 착상하기 이전에 그 배아가 살아서 출생할 확률은 30%를 넘지 않는다. 착상이 된 직후 그 확률이 60%를 밑돈다. 수태 후 약 6주가 지나서야 확률이 80%에 이른다.”<sup>39)</sup>

---

35) 위의 책.

36) 위의 책, 1~2쪽.

37) 『월간 과학동아』, 1999년 2월, 53쪽.

38) John T. Noonan, “An Almost Absolute Value in History” (Cambridge, 1970), 56~57쪽.

39) 피터 싱어, “인간의 생명은 언제 시작되는가?”, 구영모 편역, 『생명의료윤리』, (서울: 동녘, 2001), 95쪽 재인용.

카톨릭을 중심한 보수주의자들의 관점은 ‘수정 착상되면 태아는 곧 인간 생명이기 때문에 낙태는 정당화 될 수 없다’ 한다.<sup>40)</sup> 하지만 호주의 멜버른 카톨릭 신학 대학 학장인 노만 포드(Norman Ford) 신부는 수정 후 배아가 일란성 쌍둥이로 분할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임신 초기 기간 동안에 배아는 인간 개체라기보다는 세포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제기하는데 포드는 쌍둥이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동안에는 세포 덩어리들이 독립적인 생명체를 이루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sup>41)</sup>

② 뇌의 기능이 발휘되는 시점이라는 주장으로, 뇌사를 죽음의 기준으로 보려는 경향에 맞춰 생명의 시작도 뇌와 연결시키는 시도이다.<sup>42)</sup> 뇌는 크게 대뇌, 소뇌, 뇌간의 세 부분으로 구분되며 그 중 뇌간에는 인체 모든 장기의 기능을 통하고 조절하는 신경중추와 반사중추가 있으며 특히 생명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호흡기능의 중추가 있다. 사람은 대뇌나 소뇌가 손상되면 죽기도 하지만 뇌간의 손상은 곧 죽음을 초래하기에 이들 중 중추신경계가 분명히 확인되는 임신 후 20일쯤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뇌간의 상관 작용이 분명해지는 60일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무뇌아의 경우에는 뇌간의 형성이 아직 확실히 이뤄지지 않았기에 인간의 생명으로 태아가 성립되는 시점을 알 수가 없다는 한계성을 지닌다.

③ 산모가 태동을 느끼는 태동기를 생명의 시작으로 보는 주장이 있다. 전통적인 카톨릭에 따르면, 이 때가 태아가 영혼을 갖는 때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현대 카톨릭 신학자들에게서도 폐기된 지 오래다.

---

40) 박원기, 앞의 책, 172쪽.

41) 위의 책.

42) 구영모 편역, 『생명의료윤리』, (서울: 동녘, 2001), 99쪽.

④ 태아의 체외생존능력을 중시하는 관점으로 대략 수정 후 28주 정도를 생명이 시작되는 시점이라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1973년 미연방 대법원의 ‘Roe v. Wade’로 더욱 확고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의 판결로 태아가 체외에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이 언제부터 생기는가 하여 당시의 기술의 수준으로 미숙아가 태어나 집중 간호를 받아 거의 100% 생존할 수 있는 시기를 28주 정도라 하였다. 따라서 태아가 28주 정도는 되어야 인간의 생명으로 인정되었다. 그러나 이 주장도 이제는 의료 기술의 발달로 더 일찍 출산되어도 생존시킬 수 있어 이 시기도 정확하게 인간 생명의 출발점으로 볼 수 없다. 같은 기준에 의해 한때는 인간이 아니라고 했던 아이가 다른 때에는 인간으로 인정된다는 것은 자궁 밖 생존능력이 인간성의 기준이 될 수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⑤ 마지막으로 진통으로 출산이 이뤄져야만 인간 생명이 시작된다는 주장이 있다.

### 3) 사회결과학과(the school of social consequences)

사회결과학파는 생물학적 모든 근거를 부정한다. 모든 “생명”을 ‘인간의 생명’으로 간주하는 것은 잘못이며, 태어나 출생만으로 인간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한다. 이 입장은 각 개인이 인격적 주체가 되어야, 혹은 이성을 행사할 때 비로소 인간이 된다는 것이다. 태아도 사회에 미치는 결과에 따라 인간 생명으로 결정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인간이 인격적 주체가 되려면 출생하고도 많은 시간이 흘러야 하며, 개인마다 시간적 차이가 있고, 그를 인격으로 취급하는 기준도 주관적이어서 이 논리에 의하면 유아 살해도 정당화될 수 있고, 성인이라 하더라도 사회에 의존하거나 사회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인간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올 수 있다.

## II. 낙태 찬성론자의 주장

낙태 찬성론자들은 여성이 자신의 몸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원치 않는 임신의 종결을 선택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한 명의 새로운 아기, 또한 심각한 장애아의 출생으로 인해 여성의 결혼생활과 직장 생활에 부담을 주고 행복이 위협받게 될 때 낙태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사생활권과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상의 권리라는 것이다. 그리고 낙태는 원치 않는 아이로 태어나 사랑이나 보호 대신 학대받는 아이의 출생을 방지하고 특히 장애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야 할 장애자의 고통을 면케 해 주는 사랑의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sup>43)</sup>

### 1. 인간성을 위해 제시한 조건들

태아의 인간성 문제는 낙태나 안락사를 지지하는 철학자들과 윤리학자들이 태아에게서 인간이 갖는 생명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부정하기 위해 생물학적 인간 생명과 인격을 분리시킴으로써 만들어 낸 문제이다.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죽이는 것을 잘못으로 만드는 것은 죽임을 당하는 실체가 인간(human being)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실체가 한 인격(person)이라는 것이다”<sup>44)</sup> 하면서, 인격이라면 이성적이어야 하고 자의식을 하고 시간상의 자신의 존재를 의식해야 하고 의사 소통을 해야 하는데, 그들은 이러한 임의적인 구분에 의해 태아와 영아, 그리고 다운증후군, 정신지체자들을 비인격화하여 낙태와 영아살해, 안락사를 정당화하는 주장을 펼친다.

---

43) 신성자, 앞의 책, 27쪽.

44) 신성자, 앞의 책, 31쪽.

인간이란 이성과 시간에 대해 지속적인 정체감을 가진 존재로 로크(John Lock)는 정의하면서, 인간만이 계속 살기를 원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과 계획을 가질 수 있으며 비인간들은 생명에 대한 의지나 그에 따른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sup>45)</sup> 툴리(Michael Tooley)는 지속되는 자아만이 살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속적인 자아가 되는 것은 순간적인 욕망이나 흥미를 가지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시간적으로 지속되는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자의식과 미래감각을 가지고 있는 존재만이 살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다.<sup>46)</sup>

낙태찬성자들은 인간성의 근거가 생물학적 인간 생명을 소유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국가 또는 사회가 정한 별도의 기준의 충족 여부라고 말한다. 생물학적인 인간 종(種)에 속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그래서 그들은 인간됨을 위한 별도의 조건들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낙태찬성자들이 말하는 인간됨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 ① 의식 : 특별히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
- ② 이성
- ③ 자의식
- ④ 자아 조정능력 : 외적 조종으로부터 독립된 자아유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
- ⑤ 과거와 미래에 대한 감각
- ⑥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 반응(관계)할 수 있는 능력
- ⑦ 의사소통 능력

태아가 이 기준들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은 명백하다. 그래서 태아는

---

45) Gordon Preece, ed. *Rethinking Peter Singer* (Inter-Varsity, 2002), 129쪽.

46) Richard Winter, 『사람입니까?』, 성인경 역, (서울: 일지각, 1993), 56쪽.

인간으로 간주될 수 없으며 인간만이 권리를 갖기 때문에 태아는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 태아는 물론 영아들, 혼수상태의 사람들, ‘식물인간’들, 치매환자들, 중증의 정신지체자들을 비인간들로 분류하도록 허용하고 가족과 사회의 부담을 덜도록 인간의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낙태와 자의적 안락사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확대 의미로 진전 될 수 있을 것이다.

## 2. 인간 존재의 시작 시점에 대한 견해들(생명의 시작점)

낙태에 관한 윤리적 문제의 논의에 핵심이 되는 것은 인간 생명이 언제 시작되느냐 일 것이다. 왜냐하면 태아가 언제부터 인간의 생명으로 인정되느냐에 따라 낙태가 정당할 수도 그릇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수태 직후 수정란부터 인간이라 규정한다면 낙태는 인간 살해 행위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시킬 수 없지만, 만일 출생을 인간 생명의 시작으로 본다면 낙태는 정당화될 것이다. 그러기에 인간 생명의 시작점을 명확히 규정함은 매우 중요하다.

생물학적 지식이 결여되었던 과거에는 출생 전까지는 인간으로 보지 않았다. 그러다가 인간의 생명을 태아시기로 옮겨 생각한 시기는 아리스토텔레스학파의 학자들이었다. 그들은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남자아이의 경우는 수정 후 40일, 여자아이일 경우에는 90일 정도 되어야 영혼이 부여된다고 주장하였다.<sup>47)</sup>

그러면 과연 인간의 생명은 언제부터 시작될까? 280일 가량의 모체 속 태아 성장기간 중 어떤 시점을 인간 생명의 시작으로 보아야 하는가?

---

47) 한국가톨릭의사협회(편), 『의학윤리』, (수문사, 1997), 189쪽.

낙태찬성자들의 관점이 각기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수정 순간부터 인간의 생명체라는 주장에는 반대하며 생명의 시작점에 대한 주장이 분분하다는 사실이다.

① 수정(임신)순간 : 유전학과는 인간을 사람의 유전적 암호(genetic code)와 동일해서 인간의 유전인자를 지닌 모든 존재를 사람으로 규정한다. 모든 사람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얻은 성품은 수정순간에 형성되므로 유전자와 염색체가 머리카락의 색깔에서부터 인체의 화학적 성질을 통제하는 선(glands)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결정짓는다고 보는 입장이다.<sup>48)</sup> 유전인자가 형성되는 순간(수정)을 인간이 되는 시기로 보는 카톨릭을 중심으로 하는 보수주의자들의 관점으로서 일단 수태되면 그 존재는 곧 인간이 될 가능성을 지닌 까닭에 성인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생명에 관한 권리를 가진 태아는 인간 생명이기에 낙태는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대부분의 낙태 반대자들은 이 주장을 따른다.<sup>49)</sup> 하지만 노만 포드는 ‘임신 초기 동안에 배아는 인간 개체라기보다는 세포덩어리에 불과하다. 인간 생명의 시작은 수정되는 순간이 아니고 수정 후 14일 뒤에 쌍둥이로 될 가능성이 사라졌을 때’라고 주장한다.<sup>50)</sup>

② 착상 때 : 수정 14일 정도에 착상이 완료되는데 이때를 생명의 시작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즉 수정란이 자궁내막에 완전히 안착했다는 말은 어머니와 아기의 구체적인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함을 의미하는데 지지자들은 “인간됨은 관계를 맺는 능력에서 비롯 된다”는 전제를 바탕

---

48) 맹용길, 『성경적 입장에서 본 인공유산의 문제』, (두란노서원, 1990), 9쪽.

49) 피터 싱어, “인간의 생명은 언제 시작되었는가?”, 구영모 편역, 『생명의료 윤리』, 89쪽에서 재인용.

50) Peter Singer, *Rethinking Life and Death : The Collapse of Our Traditional Ethics*, (St. Martin's Griffin, New York, 1994), 104쪽.

‘노만 포드’-호주 멜버른 가톨릭 신학 대학장. 쌍둥이로 될 가능성이 있는 동안에는 세포 덩어리들이 독립적인 생명체를 이루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으로 이 주장을 지지한다.<sup>51)</sup> 낙태 반대론자인 미국 로마 카톨릭 신학자인 누넨(John T. Noonan)은 그의 논문에서 “하나의 정자를 파괴하는 것과 태아를 파괴하는 것의 차이점은 정자 한 마리가 이성과 감정을 지닌 존재가 될 확률은 2억분의 1인 반면, 태아는 이미 고통에 민감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태어날 확률이 80%나 된다”. 하였지만,<sup>52)</sup> 최근 발달한 의료 진단 기술은 “배아가 자궁벽에 착상하기 이전에 그 배아가 살아서 출생할 확률은 30%를 넘지 않는다. 착상 된 직후에는 60%를 밀돈다. 수태 후 약 6주가 지나서야 확률이 80%에 이른다”하며 누넨의 주장이 매우 잘못 되었다고 피터 싱어(Peter Singer)는 논박하고 있다.<sup>53)</sup>

③ 뇌의 발현 : 뇌사를 죽음의 기준으로 보려는 경향에 맞춰 생명의 시작도 뇌와 연결시키려는 의도이다. 뇌의 최초의 뇌 활동이 시작되는 54일째부터라는 주장과, 뇌의 활동이 지속적으로 되는 32주로 보는 견해가 있다.

④ 태동 · 아기가 움직이는 것이 어머니에게 느껴질 때(4개월). 전통적인 카톨릭에 따르면, 이 때가 태아가 영혼을 갖는 때라고 생각 한다

⑤ 생존 능력 : 태아가 자궁 밖에서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때(20주). 태아의 체외생존능력을 중시하는 관점으로 대략 수정 후 28주 정도를 생명이 시작되는 시점이라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1973년 미연방대법원의 'Roe v. Wade'로 더욱 확고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의 판결로 태아가 체외에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이 언제부터 생기는가 하여 당시의 기술의 수준으로 미숙아가 태어나 집중 간호를 받아 거의 100% 생존할 수 있는 시기를 28주 정도라 하였다. 따라서 태아가 28주 정도는 되어야 인간의 생명으로 인정되었다.

---

51) 「월간 과학 동아」, 1999. 2. 53쪽.

52) John T. Noonan, “An Almost Absolute Value in History” (Cambridge, 1970), 56~57쪽.

53) 피터 싱어, 앞의 책, 104쪽.

⑥ 출생 : 진통으로 출산이 이뤄져야만 인간 생명이 시작된다는 주장이 있다. 한국의 현행 형법에서는 인간이 되는 시점을 이 주장에 따르고 있다.

### 3. 신학적 근거

그렇다면 낙태 찬성론자들이 성경에서 제시하는 근거는 무엇일까?

#### 1) 태아를 불안정한 인간으로 보는 신학적 근거

많은 성경 구절들이 “태아는 인간이 아니다”라는 견해를 뒷받침 해주는 근거로 인용되고 있다. 낙태 찬성론의 입장을 뒷받침해 주기 위해 인용되고 있는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살펴보자.

대표적으로 폰 라드(Gerhard Von Rad)는 창세기 2:7을 인용하면서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생명을 받은 이후에야 “생명이 되었다(become a living being)”고 말한다. 출생하기 전까지 호흡하지 못하므로, 태아는 태어나기 전까지는 인간이 아니라고 주장한다.<sup>54)</sup> 그는 “흙으로 빚어진 인간은 신이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심으로써 비로소 산 존재가 되었다. 이러한 신적 생명력이 질료적인 신체에 들어감으로써 비로소 인격화되고 개별화된다. 신체와 결부된 숨이 비로소 인간을 산 존재로 만든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구약성서 인간학의 표준 구절이다. 이 인간학은 몸과 영혼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몸과 생명을 구별한다. 또한 신이 그의 숨을 거두시면(시편104:29-30) 인간은 다시 생명 없는 질료가 된다”고 말하고 있다.<sup>55)</sup>

54) Gerhard Von Rad, 『국제성서주석(창세기)』, 한국신학 연구소 역, (한국신학연구소 1981), 81~82쪽.

‘태아는 인간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다.<sup>56)</sup>

(욥기 34:14-15)

“그가 만일 자기만 생각하시고 그 신과 기운을 거두실진대  
모든 혈기 있는 자가 일체로 망하고 사람도 진토로 돌아가리라”

여기서 노르만 L. 카이슬러는 “생명은 호흡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호흡하기 이전에는 인간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추론을 할 수 있으며, 호흡이 인간 현존과 동일시된다면, 호흡의 상실은 인간 생명의 상실을 의미할 것이다” 하였다.

여기서 카일 텔리취는 “신과 기운을 거두실(숨과 생명을 끌어들이신다면) 때 즉, 죽게 될 것이다. 창세기 2:7에서 하나님이 생기를 주심으로 사람이 생령이 되었기에 숨을 거두심으로 흠으로 돌아갔다는 말은 결국 숨을 쉴 때는 사람이고 숨을 쉬지 않을 때는 사람이 아닌 것이다” 하였다.

(전도서 6:3-5)

“사람이 비록 일백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심령에 낙이 족하지 못하고 또 그 몸이 매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저 보다 낫다 하노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 이름이 어두움에 덮이니 햇빛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나 이가 저보다 평안함이라”

여기에 대한 해석으로 ‘태아가 어두운 무덤에 누워 있기만 하는 죽은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 또한 낙태된 자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태아는 인간이 아니다’라고 말한다.<sup>57)</sup>

---

55) 위의 책.

56) 노르만 L. 카이슬러, 『기독교 윤리학』, 위겨찬 역, (기독교문서선교회, 1992), 173~175쪽.  
카일 텔리취, 『구약주석 욥기(하)』, 김득중 역, (기독교문화협회, 1985), 92~93쪽.

57) 노르만 L. 카이슬러, 앞의 책, 175-178쪽.

한편 성경 주석자 H. 링그렌은 위 구절에서 “낙태된 자가 행복하다고 묘사가 되고 있는데 낙태된 자는 결코 태어난 것이 아니라, 헛됨과 어둠 속으로 왔다가 사라진 자이며 사물이 이 세상에 현존하게 됨을 알리는 이름도(창1, 5, 8, 10장), 그리고 나뉘대로 이름과 후손도 지닐 수 있는 무덤도 받지 못하고 산자의 이 행복도 맛보지 못한 자이다. 맨 끝에 나오는 ‘평안’이라는 말에서 우리는 전도자가 인생의 불안과 불신 가운데서 감추어진 고통의 외침을 들 수 있다. 전도자는 낙태된 자가 이런 평안에 이른다” 하였다.<sup>58)</sup>

한편 H. C. 류폴드는 위 ‘낙태된 자’를 우리말 번역과는 달리 “조산(premature birth)”으로 번역하고 있다. 그는 이 구절의 의미가 “조산된 자가 부자가 가지는 그러한 불안과 초조를 가지지 않고 편안함을 가지고 있다” 하였다.<sup>59)</sup>

## 2) 태아를 잠재적 인간으로 보는 신학적 근거

태아를 잠재적인 인간으로 보는 자들은 일정하게 주어진 상황에서는 어머니의 권리라든가 사회의 권리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낙태가 정당화 될 수 있는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견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강간을 당하거나 근친상간으로 임신한 여성, 그리고 유전적인 불구를 임신한 여성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낙태라면 적극 찬성하고 있다.<sup>60)</sup> 이 견해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성경구절들은 출애굽기 21:22-23, 시편 51:5, 시편 139:13-16, 로마서 5:12, 히브리서 7:10 등을 인용한다.

### (출애굽기 21:22-25)

58) H. 링그렌, W. 침멀리 공저, 『국제성서주석 17(전도서)』, 한국신학 연구소 역, (한국신학연구소, 1994), 311쪽.

59) H. C. 류폴드, 『반즈성경 주석(전도서)』, 명종남 역, (크리스찬서적, 1992), 148쪽.

60) 마르틴 노트, 『국제성서주석(출애굽기)』, 한국신학연구소 역, (한국신학연구소, 1994), 217~218쪽.

(22절)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 밴 여인을 다쳐 낙태케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좇아 낼 것이니라

(23절)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24절) 눈은 눈으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25절)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린 것으로 갚을지니라”

이 구절에 대하여, 태아를 잠재적인 인간으로 보는 이들은 이 구절은 태아가 사망하면 벌금형이 부과되지만 산모가 사망하면 사형에 처했다는 것은 산모의 실재적인 생명이 태아의 잠재적인 생명보다 훨씬 귀중하게 여겨진다고 보기에 “태어나기 전의 태아가 태어난 후의 아기 보다 미흡하다”는 것이며,<sup>61)</sup> 이 성경구절은 “태아가 완전한 인간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이 명확하다”는 것이다.<sup>62)</sup>

한편 더햄(John Durham)은 격투를 하던 두 남자가 임신중인 여자를 쳐서 의상을 입히고 낙태케 만들었을 때 산모나 태아 둘 중 하나에게 해가 없는 경우에는 때린 사람은 그 여자의 남편이 제3자(재판장)의 동의에 기초하여 요구하는 대로 배상해 주어야만 한다. 그러나 산모나 태아에게 장기적인 치료를 요하는 상해가 가해졌을 경우에는 상해를 입힌 자에게 동일한 상해가 가해졌다. 22절은 태아를 잃어버린 것에 대한 배상을 말하고, 23절은 산모에게 가해진 배상을 말하고 있다. “태아를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다른 것으로 대치하고, 산모에게 입힌 피해는 동해 보복법으로 해결 한다” 고 해석하여 태아는 잠재적인 인간으로 본다.<sup>63)</sup>

(시편 51:5)

61) 한중식, “낙태논쟁 - 기독교 윤리적 접근”, 「승실대학교 논문집(제23집)」, 16~17쪽.

62) 노르만 L. 카이슬러, 앞의 책, 181쪽.

63) John Durham, 『국제성서주석(출애굽기)』, 한국신학연구소 역, (한국신학연구소, 198), 121쪽.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여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A. 바이저 박사는 이 구절이 "인간의 본질에 대한 궁극적인 깨달음에 대하여 말하고 있으며, 뱃속에서 아이가 자라는 환경이 이미 죄와 유혹으로 침투되어 있다"고 한다.<sup>64)</sup>

카일 텔리취는 이 구절이 인간의 죄 유전을 잘 보여 주는 구절이라고 말한다. "그의 양친이 죄 많은 인간 존재이었으며 이러한 죄가 그의 탄생과 심지어는 잉태에까지 미쳐서 그를 죄에 물들게 하였다. 그래서 자신이 타락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회상해 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sup>65)</sup>

존 스타트 목사는 이 구절이 "임신과 해산의 과정 자체가 죄라는 것이 아니며 그 보다는 우리 인간의 본성이 시초부터 죄로 오염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말한다.<sup>66)</sup>

존 칼빈은 이 구절에 대해 "이 말은 우리가 뱃속에 처음 있게 된 순간부터 죄 중에서 자랐음을 의미해 준다. 이 구절은 아담에 의해서 인간 가족 전체 위에 임한 원죄에 대한 증거를 두드러지게 증명하는 것이다" 하였다.<sup>67)</sup>

위 주석가들은 이 구절에서 우리의 죄악이 언제부터 있었는지, 어떻게 전가되었는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결국 우리는 태어나기 전에는 잠재적으로만 인간이고, 태어난 후에야 실제적인 인간이 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한다.<sup>68)</sup>

---

64) A. 바이저, 『국제성서주석(시편 I)』, 김이곤 역, (한국신학연구소, 1994), 545쪽.

65) 카일 텔리취, 『구약주석 시편(중)』, 최성도 역, (기독교 문화협회, 1984), 158 ~ 159쪽.

66) 존 스타트, 『시편 강해』, 홍병창 역, (엠마오, 1994), 80쪽.

67) 존 칼빈, 『구약성경 주석(시편)』, 존 칼빈 성경주석 편찬위원회 역, (성서교재간행사, 1980), 460쪽.

68) 노르만 L. 가이슬러, 앞의 책, 180쪽.

### Ⅲ. 낙태 반대론자의 주장

낙태 찬성자들이 앞에서 인간성을 위한 조건을 제시하였다. 이 문제가 낙태 논쟁의 핵심 이유가 됨은 만약 태아가 인간이 아니라면 명백하게 여성의 사생활권 또는 자율권이 태아의 그 무엇보다도 우선하고, 만약 태아가 인간이라면 낙태는 살인이며 따라서 잘못이기 때문이다.<sup>69)</sup>

그래서 이들은 태아가 잠재적 인간이 아니라 완전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철학적, 과학적 근거와 신학적 근거 위에서 밝히려고 한다.

#### 1. 철학적 근거

태아가 인간이 아닌 무엇이 있다가 인간으로 되는 주장은 인간 생명이 전혀 아니었던 무엇이 인간 생명으로 규칙적으로 발달해야 하는 철학적인 문제를 안고 있으며 또한 단순한 동물조직이 인간이 되는 ‘마술적 순간’을 가정해야 할뿐만 아니라 그 순간이 언제이며 또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지는 지가 설명되어야 한다. 그래서 낙태 찬성론자들이 제시한 견해들이 임의적이라는 것이다.<sup>70)</sup> 그리고 이성이나 자의식, 사회적 관계의 노력 또는 언어능력의 획득 같은 기준에 따라 인간성을 규정한다면 일시적 혼수상태에 있는 사람들, “식물인간들”, 즉 알츠하이머 환자들, 정신지체자들, 치매 환자들은 물론이고, 아주 어린아이들, 아주 나이 많은 노인들은 비인간으로 간주되는 문제가 생긴다. 또한 인간성이 사회의 어떤 임의적 규정에 의해 인정받게 된다면 그들이 원치 않는 특정 부류의 사람들을 인간으로부터 배제하는 기준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사회가 원치 않는 사람들은 인간의 신분과 가치를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나치정권에서 유대인들, 또는 특정 인

---

69) 신성자, 앞의 책, 11쪽.

70) 신성자, 앞의 책, 46쪽.

중, 또는 플레처(Joseph Fletcher)가 말하는 지능 지수 20이하인 사람들, 또는 사회 부담이 되는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은 비인간으로 분류되어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될 것이다.<sup>71)</sup> 그러므로 “마술적 순간”에 기초하여 제시된 인간서의 개념은 “우리가 우리 자신들 안에서 아는 대로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안에서 그것을 직관하는 대로 인격적 존재의 낚아채기와 일치”하지 않는다.<sup>72)</sup>

“이성, 의식, 자아, 감각, 인격”이라는 용어는 모두 선형적 실재에 대한 단어이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든지 시공간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인간 주관적 경험은 일정하지 않으며 정도의 차이가 현저하다. ‘인간성’은 인간 유기체의 일부가 아니며, 또한 어떤 마술적 순간에 유기적 발달 속으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다. 자아는 자아의식 훨씬 이전에 ‘거기’ 있었다. 우리의 인간성은 우리의 정체성이다.<sup>73)</sup> 인간성은 태아의 발달 과정 속에서 어떤 마술적 순간에 태아 속으로 삽입되거나 더해지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인간이었다. 수정순간부터 태아가 인간이 아니었다면 인간으로 되지 못하였을 것이다. 인간이 아닌 무엇에서 인간으로 되는 어떤 순간과 인간성을 위한 별도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은 인간을 몸과 영혼의 통일체로 보지 않는 이원론적 견해로서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지지될 수 없다.<sup>74)</sup>

## 2. 과학적 근거

현재의 과학은 한 인간의 존재가 수정 순간 시작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

71) Moral Medicine, 392쪽.

72) 위의 책, 392쪽.

73) 위의 책, 393쪽.

74) 신성자, 앞의 책, 47쪽.



해주고 있다. 정자와 난자가 결합해서 하나의 새로운 세포로 형성하는데 이 세포는 미항공우주국(NASA)의 모든 컴퓨터에 포함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sup>75)</sup> 정자와 난자로부터 각각 23개씩의 염색체를 받은 수정란의 유전정보는 어느 쪽과도 동일하지 않으며 인간의 모든 유전자 정보를 다 갖고 있고 죽을 때까지 새로운 정보는 추가되지 않는다. 본질적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이다. 인간 존재의 시작이 수정 순간임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임신과 출산 사이의 어떤 시점에서 인간 특징들이 생긴다고 생각할 수 없다. 인간성을 결정하는 근거로 제시된 여러 근거들은 주관적이고 임의적인 것인데 반해 유전자 정보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객관적인 근거이다. 태아의 인간성은 그의 각 세포에서 검증될 수 있는 것이다. 현미경으로 수정란을 보면 그 DNA 가닥이 인간 종(種) 특유의 것이며 인간의 모든 유전자 정보를 완전하게 다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성(性)이 결정되는 때도 이 때이다.

1981년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세계 각국에서 온 과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인간의 생명이 수정 때 시작된다는 동일한 증언을 하였다. 러준(Jerome Le June) 박사는 “수정 후 새로운 인간이 탄생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더 이상 견해의 문제가 아니라 경험적 사실이다”<sup>76)</sup>고 하였다. 고든(Hymie Gordon) 박사도 “현재 우리는 이구동성으로 언제 생명이 시작되는가의 문제는 더 이상 신학적이거나 철학적인 생명의 의미나 목적에 대한 논쟁을 벌일 수는 있겠지만, 인간의 생명을 비롯한 모든 생명이 수정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시작된다는 것은 확고한 사실”이라고 증언했다.<sup>77)</sup>

현대의학은 자궁 안에 있는 태아에 대해 자궁 바깥에 있는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며 수술까지도 한다. 태아가 아직 인간

75) Public Jewett, 앞의 책, 248쪽.

76) 노르만 L. 카이슬러, 앞의 책, 190쪽.

77) 위의 책, 191쪽.

이 아니라면 어찌 동일한 방법으로 치료를 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완전한 인간 생명이 수정 때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지금까지 알려진 생물학, 생태학, 태아학 등의 과학적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다.

현미경으로 수정란의 유전자적 완전성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현대 과학은 초음파 영상을 통해 자궁 안에 있는 태아의 성장과정을 생생하게 볼 수 있게 해주었는데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는 수정부터 출생까지 연속선상에 있다는 말이다<sup>78)</sup>.

·수정 - 정자와 난자로부터 각각 23개씩의 염색체를 받아 부모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포를 이룬다.

·착상 - 수정란은 빠른 세포분열을 통해 일주일만에 수백 개의 세포로 되어 배아 반포가 형성되어 7일만에 자궁벽에 착상한다. 착상 직후 원시 융모막이 형성되며, 융모막의 융모 발달과 함께 수정란이나 집합체가 아닌 배아로 불리게 된다.

·14일 - 기간세포가 성장하며 신경, 근육, 조혈, 폐 등 210여 개의 신체 기관을 형성한다.

·17일 - 혈액세포가 형성된다.

·18일 - 심장이 생기며 24일째는 박동을 시작하며 일주일 후면 박동이 규칙적이 된다.

·20일 - 두뇌의 척수, 그리고 신경조직이 거의 완성되며 5주째는 두뇌의 일부가 형성되는데, 감각과 몸의 움직임에 통제하고 있는 기관과 대뇌피질이 보인다.

·28일 - 40여 개의 근육이 등뼈를 떠받치고 눈, 코, 귀가 형성된다. 이때 태아는 완전한 인간임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

·8주 - 커다란 머리, 눈과 귀가 형성되어 자연스럽게 움직이며, 모든 조

---

78) 맹용길, 앞의 책, 16쪽.

- 직이 완전히 형성되어 태어날 때까지 단지 자라기만 한다.
- 9주 - 손, 발 엉덩이에 물체가 닿으면 피하기도 한다.
  - 12주 - 손가락을 빨고, 고개를 돌리고, 한쪽 눈을 깜박이기도 하고, 얼굴을 찌푸리기도 하고 무엇을 삼키기도 한다. 손과 발과 얼굴은 접촉에 민감해지며 충격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자고 깨기도 한다.
  - 12주 - 뇌세포가 급속도로 증가하며, 몸 전체가 통증에 민감하며, 뇌파 기록도 가능해 진다.
  - 14주 -외성기의 육안 관찰로도 남녀 성(性) 구별이 가능하다.
  - 16주 - 정둔장(앞은 키)이 6~7cm가 되고 무게는 110g 정도이고
  - 5개월 - 꿈을 꿀 수 있고, 자궁 밖에서 살수도 있다.
  - 23주- 청각 기능이 완전해 진다.
  - 40주 -최종월경 시작 일로부터 40주, 만기임신이 되면 정둔장은 36cm, 체중은 약 3,400g에 도달하여 완전한 발달을 보이며, 출산하게 된다.<sup>79)</sup>

영국의 한 의학 잡지는 태아의 청력 발달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sup>80)</sup>

“태아의 속귀는 임신 중기에 완성되며 태아는 그 때부터 여러 가지 소리에 반응을 나타낸다. 태아는 자궁 속에서 계속되는 매우 커다란 소리에 둘러싸여 있다. 즉 어머니의 장을 통과하는 공기의 잡음이나 자궁내 피 공급의 반복적인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다. 자궁 밖에서 들리는 커다란 음악 소리나 문 닫히는 황 소리도 듣는다. 태아는 매우 높은 소리에도 반응을 보이며, 어른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작은 소리에도 반응을 보인다. 태아는 엄마의 목소리를 가장 크게 듣고 있으며 외부의 소리도 거의 그대로 듣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캐나다 온타리오의 해밀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지휘자는 젊었을 때 연습하고 있던 여러 첼로 악보가 이상하게도 한번도 본 적이 없는데도 낮익어 보여 전문 첼로 연주

79) 「영국 의학저널」, 1980.1. 26, 겨울호, 31~32쪽.

80) 위의 책, 30쪽.

가인 어머니에게 그 작품명을 말하자 그의 어머니는 그를 임신 중에 바로 그 곡들을 연습하고 있었다고 했다. 이 뿐만 아니라 태아는 음악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반응한다. 조용한 음악은 태아의 발차기 빈도를 낮추고 그렇지 않은 음악은 발차기 빈도를 높이며, 록(Rock) 음악에는 흥분해 어머니의 갈비뼈에 금이 갈 정도로 강한 발차기를 한 경우도 보고 있다.

또한 태아의 연속극 중독이라는 논문 보고가 있었다. 카톨릭 의대 성인경 교수는 자신의 저서 “신생아의 자궁내 기억력”에서 “태아는 청각적인 반응이 반복되고 친숙하게 되며 쉽게 배우고 기억하는데 엄마가 임신 중에 특정한 TV 연속극을 즐겨보면 출생이후에 이 연속극이 나오는 소리에 분명히 친밀감을 보인다”고 했다.<sup>81)</sup>

태아는 듣고 인식하고, 기억을 유지하고, 배우고, 자극에 반응하며 그 이상을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들은 태아가 인간임을 부정할 수 없게 만든다.

“난자가 수정되는 그 순간부터, 아버지나 어머니의 그 누구의 것도 아닌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것이다. 자기 자신의 성장을 시작하는 새로운 인간의 생명인 것이다. 이것이 애초에 인간이 아니었다면 결코 인간으로 성장하지 않을 것이다. ... 수정되는 순간부터 권리가 주어지며 ... 위대한 가능성들이 자신의 자리를 찾아내고 실현되는 상태에 이르기까지 생명의 모험을 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sup>82)</sup>

아직 신생아 수준에 이르지 못한 발육 중에 있는 태아를 인간이 아니라고 부정할 수 없다. 각 사람은 모두 수정에서부터 시작하여 태아의 발

---

81) 「조선일보」, 2001. 11. 27.

82) 교황 바오로 2세, “낙태에 관한 선언”, 『목회와 신학』, 189쪽.

달 전 과정을 거쳤다. 수정된 순간에 생명이 시작되었고 그것은 성장의 첫 단계였다. 초기 배아는 우리와 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단순히 발달과정의 초기에 있었을 뿐이었다.

과학이 영상을 통해 태아가 느끼고, 배우고, 심지어 음악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면, 그리고 인간의 정신 활동이 단지 물질적 뇌의 기능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면 태아는 물질적 뇌 외에 비물질적 요소들을 갖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 3. 신학적 근거

낙태 논쟁은 궁극적으로 생명에 대한 공리주의적 견해와 생명우선주의적 견해의 충돌로 규정될 수 있는 만큼 여기서는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기독교적 관점을 밝히고자 한다. 현재 낙태 찬성자들의 주장이 태아가 인간이라 하더라도 어머니는 태아에게 자신의 몸을 사용하게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낙태가 정당하다는 대담한 형태에 이르렀다.<sup>83)</sup> 그러므로 태아가 인간이라는 사실은 낙태는 곧 중대한 죄악을 저지르는 것이기에 인간 생명이 다른 어떤 것에 우선하는 특별한 가치와 존엄성을 지닌 존재임을 성경을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 1) 신의 손으로 창조된 인간

인간 생명에 특별한 가치를 부여하는 성경의 근거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은 그 생명을 창조주에게 받았다는 주장에 근거하고 있다(창세기 1:20, 24, 30, 2:7). 특히, 창세기 2장 7절은 인간이 그 형체와 생명을 신으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

---

83) 신성자, 앞의 책, 65쪽.

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성서에 의하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준 이는 신이며(행17:25), 인류의 창조주는 개인의 창조주이다(사 17:7, “그 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자를 쳐다보겠으며”). 욥은 자신이 신의 창조물임을 고백한다(욥10:8, “주의 손으로 나를 만드사 백체를 이루셨거늘”). 다윗도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하며 개인의 출생이 하나님의 창조라고 주장하고 있다.<sup>84)</sup>

성경 저자들은 신이 각 개인을 자궁 안에서 짓고 性관계는 단지 신이 축복을 주는 수단으로 간주했다.<sup>85)</sup>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시 127:3). 자녀들은 단지 성적 결합의 결과가 아니라 신의 선물이라는 것이 출생과 임신에 관한 성경의 관점이다. 하와가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창 4:1)고 했고, 사라는 자녀를 낳지 못한 이유를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다”(창 16:2)고 생각했다. 여호와께서 레아의 태를 여셨다 하였고(창 29:31,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으니...”)(창 29:31), 룻이 잉태하여 “여호와께서 잉태케 하시므로”(룻 4:13) 아들을 낳았다는 것이다.

성서의 주장에 따르면 모든 피조물들은 그것들이 신의 창조라는 사실에 의해 가치를 지지만, 그러나 신은 특별히 피조물의 생명에 더 높은 가치를 두었다. 그래서 인간에게 동물을 식용으로 허용할 때도 그것들의 생명을 나타내는 피는 먹지 말라는 제한을 두었다는 것이다(창 9:3-4, 레 17:14). 이 주장에 따르면 신이 니느웨 재앙을 내리지 않은 것도 그 안에 있는 인간들과 동물들의 생명을 아끼는 때문이었다(욥 4:11).

## 2) 신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84) 구약성경, 시편139:13-14.

85) 신성자, 앞의 책, 14쪽.

성경에 의하면, 피조물들 중에서도 조물주는 인간 생명에 독특한 가치를 부여하고 살인을 금하였고(출 20:13, 신 5:17), 인간 생명 파괴행위는 생명이외의 어떤 것으로도 대가를 치를 수 없는 극악한 죄로 간주하였다.<sup>86)</sup> 왜냐하면 인간이 신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sup>87)</sup>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라”(창 1:27). 성경은 분명하게 피조물들 중에 인간만이 이성, 도덕성, 영성이라는 특성을 소유하였고, 신의 대리인으로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권한을 받았으며,<sup>88)</sup> 다른 동물과 전혀 다른 직립자세를 취하고, 신의 상대로 창조되어 역사를 함께 가질 수 있는 존재로 독특하게 지음 받았다고 주장한다.<sup>89)</sup>

요컨대 성서의 주장에 의하면 인간은 신의 창조물 뿐 아니라 그의 형상대로 독특하게 지음 받았기 때문에 특별한 가치가 있어 신께서 인간 생명을 특별히 존중하고 보호하라는 구체적인 명령을 명했다는 것이다(창 9:6, 약 3:9).

### 3) 인격적 관계로 창조된 인간

시편 71:6절(“내가 모태에서부터 주의 불드신바 되었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과 시편 139:16절 [“내 형질이 이루기전에 (히브리 원어로는 “나의 배아를”)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에서 다윗은 자신에 대한 신의 친밀한 관계가

86) 구약성경, 민수기35:31 “살인죄를 범한 고살 자의 속전은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87) 구약성경, 창9:6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88) William J. Dumbrell, *Covenant and Creation* (Nelson, 1984), 36쪽.

89) David Atkinson, *The Message of Genesis 1-11*(IVP, 1990), 36쪽.

배아 때부터 계속되었음에 감격하고 있다. 에레미야 1:5절(“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과 갈라디아서 1: 15절(“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도 단순히 신이 예정한다는 사실뿐 아니라 신이 태아 때부터 특별한 관계를 맺고, 사명자의 경우 출생 전부터 사명자로 취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sup>90)</sup>

“과학적으로 인간 종(種), 성경적으로 아담의 자손에 속하면 인간이다. 인간에 대한 규정적 정의에 의해 그 이상의 무엇을 인간 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은 인간의 종, 아담의 자손이라는 회원카드 외에 골드카드를 요구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자의식과 이성의 현상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태아에게 그런 기능이 존재하지 않다고 말 할 수 없다. 사과나무가 나중에 사과를 맺고, 꽃봉오리가 활짝 핀 꽃이 된다는 것은 그것들이 처음부터 사과나무였고 꽃이었기 때문인가? ‘마술적 순간’은 없다. 성경에 의하면 인간은 수정 때부터 영혼을 갖고 있다.”<sup>91)</sup>

---

90) 신성자, 앞의 책, 57~58쪽.

91) 위의 책, 63쪽.



## IV. 낙태에 대한 개신교의 입장

### 1. 자유주의적 입장

낙태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자유주의적 입장은 대략 다음과 같다.

자유주의자들은 출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의 태아는 인간이라 할 수 없으며, 그러기에 태아는 그 어떤 도덕적 지위도, 권리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한다.<sup>92)</sup> 그러므로 인간이 가진 생명이나 신체상의 온전성에 대한 권리를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산모의 권리가 태아의 권리보다 비중이 더 크고, 따라서 낙태는 어느 때라도,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당화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sup>93)</sup>

낙태에 대한 자유적이며 급진적인 입장의 대표자로 플레처(Joseph Fletcher)의 주장을 소개하고자 한다.<sup>94)</sup>

그는 낙태에 대하여 기독교 전통적인 생각보다는 달리 인간의 인간됨에서 출발한다. 그는 최소한의 지능이나 정신능력이 없는 사람을 인간으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단지 심장, 폐, 그리고 신경조직이나 혈관계가 살아 있다고 해서 인격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한다. 그는 태아의 인간성 문제와 관련하여 인간의 본질을 이성, 즉 합리적인 기능에 두는 입장이다. 이러한 생각에서 그는 태아가 아직 자유나 자기결정, 합리성, 수단이나 목적 선택, 환경에 대한 지식이 모자라기에 도덕적이거나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며 태아에게 요구되는 생명의 권리도 부인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출생 전 태아는 산모의 일부이

---

92) Thomas A Mappes, Jane S. Zembaty, 앞의 책, 3~5쪽. 여기서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은 생물학적 단계는 인정하지만 도덕적으로 태아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93) 피터 싱어, 『실천윤리학』, 앞의 책, 163~170쪽.

94) Joseph Fletcher, *Situation Ethics : The New Morality*, (The Westminster Press, 1966), 150쪽. 12~19쪽 내용을 요약함.

므로 산모의 생명을 위협할 때는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플레처는 자신의 입장을 전개하면서 다음과 같이 인간의 기준을 제시한다.

-최소한의 지능 : 지능지수(IQ) 40 이하는 인간으로서 의심이 가고 20 이하이면 인간이 아니다. 최소한의 지능이 획득되기 전이나 혹은 최소한의 지능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손실된 후의 단순한 생물학적 생명은 인간의 상태가 아니다.

-자아인식 : 이는 태아에게 발달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으로 하등척추동물뿐 아니라 무척추동물에서는 분명히 볼 수 없는 것이다.

-시간감각 : 이것은 카이로스(kairos)가 아닌 크로노스(chronos)로서 단순히 시간의 흐름을 말한다.

-미래에 대한 감각 : 현재와 미래가 있다는 것을 구분할 수 없는 사람은 진정한 인간이라고 할 수 없다.

-과거에 대한 감각 : 이는 기능을 말함인데 다른 동물과는 달리 인간은 신경학적 성장, 특별히 대뇌와 그의 신경질의 작용으로 과거를 회상하며 이것이 종들 중에서 인간이 되게 하는 특성이다.

-타인과의 관계능력 : 인간 상호간의 관계성은 우리가 인간 존재로 인식하는데 아주 중요하다. 곤충들도 사회구조 속에서 살지만 이는 본능에 의한 반면 인간사회는 문화에 근거하여 사는 것이 다르다.

-호기심 : 애정이 없이 지내는 것이 인간이 아님을 말한다. 즉 무관심한 것은 비인간적인 것이다. 인간은 배우는 자며 지식을 추구하는 자며 도구를 만들어 사용하는 자이다.

-변화의 가능성 : 생물학적으로 보아 인간존재는 발전적이다. 즉 출생, 생명, 건강, 죽음은 과정이지만 사건이 아니며 우발적이 아니라 점진적인 발전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개성 : 인간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정체성을 가지고 인식할 수 있으며 이름으로 불려질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플레처는 이러한 기준을 근거로 해서 태아가 잠재적 인간이라는 견해도 부인하고 출생 시에 하나의 인격이 되기에 태아가 인간이 되는 시기를 출생부터라고 주장한다. 여기서부터 그는 낙태를 허용한다. 즉 그는 강제적 임신을 끝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그의 윤리적 원칙은 원했을 때의 임신은 건강한 과정이지만, 원치 않았을 때는 임신은 질병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의 윤리적 질문은 낙태를 정당화하느냐가 아니라, 강제적 임신을 정당화 할 수 있느냐이다.

플레처는 강제적 임신에 관심이 많았으며, 인간의 이성의 판단에 의하여 치유적 유산뿐 아니라, 원치 않는 임신은 끝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것처럼 보인다.

## 2. 보수주의적 입장

낙태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보수주의 입장은 대략 다음과 같다.

이들은 인간 생명의 시작을 수정 순간으로 보며, 태아는 성인과 같은 도덕적 지위를 갖으며 성인과 동등한 권리가 있고,<sup>95)</sup> 그래서 태아는 다른 인간들이 소유한 죽음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생명에 대한 태아의 권리는 근본적이기에 다른 권리에 우선한다. 특히, 여성이 자신의 신체에 일어난 변화-임신-를 좌우할 권리보다 우선하며,<sup>96)</sup> 산모의 생명이 절대적으로 위험하여 산모와 태아가 함께 죽음에 이르는 상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낙태는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보수주의적 입장의 대표자로 킬리케를 소개하고자 한다.<sup>97)</sup>

---

95) Thomas A Mappes, Jane S. Zembaty, 앞의 책, 3쪽.

96) 바루흐 브로디, 『응용윤리학』, 황경식 역, (중로서적, 1988), 164쪽.

97) H. Thielicke, *Theological Ethics*, Vol.III, (Michigan : William Publishing Company, 1979) 226 ~ 228쪽 요약하였음.

틸리케는 이 시대 창조 질서 속에서 심각한 윤리적 문제로 낙태 문제를 지적하면서 생명의 신성성을 말한다. 그는 태아의 생명은 어린아이나 어른의 생명과 동일하다고 한다. 그래서 태아의 생명에 대한 불가침성은 바로 수태가 이루어지면서 주어진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임신이 되면 부모로서 책임을 질 것인가 여부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부모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태아를 독립적인 존재로 인식한다. 태아가 산모의 기관에 의존적이라 하더라도 확실히 독립성이 있는 자율적 생명을 가지고 있고, 그 자체의 뇌와 신경계와 순환계를 갖추고 있기에 자주적인 존재이며, 단지 전체로서의 어머니의 일부분이 아니라 자체내의 상대적인 독자성이 있으므로 태아의 생명은 “그 자체의 권리를 지닌 인간”으로 확립되기에 낙태는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것이라는 것이다.

그는 태아의 생물학적 사실뿐만 아니라 인간생명의 존엄성은 그 자체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양도된 존엄성’(alien dignity)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태아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한다. 그러기에 생명은 신께로부터 받은 것이며, 낙태로 동료 인간의 생사를 판결하는 극악무도한 일을 감행해서는 안되며, 그 결단은 신의 명령을 듣고 그 앞에 서서 그리고 신께 대한 책임 가운데서 일어나야 한다고 하였다.

### 3. 절충적 입장

자유주의와 보수주의의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절충주의가 있다. 절충주의의 입장은 대략 다음과 같다.

이들은 수정 순간부터 태아는 도덕적 지위를 갖기에 산모의 생명에 절대적 위협을 미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태를 허용할 수 없다는 보수주의 입장과, 태아는 아무런 도덕적 지위를 갖지 못하기에 낙태는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는 자유주의 입장 모두가 너무 극단적 견해라고 비판하면서, 보수주의 입장에서 태아가 완전한 도덕적 존재라는 전제 아래에서 낙태가 정당화 될 수 없지만 몇몇의 경우에 그 이유가 타당하다면 허용될 수도 있다는 보수주의적 절충과,<sup>98)</sup> 그리고 자유주의 입장에서 출생전까지 태아는 아무런 도덕적 지위가 없어 낙태가 가능하지만 후기 낙태는 인간의 존엄성의 상실과 파괴라는 부정적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이유로 출산 직전의 낙태는 반대하다는 자유주의적 절충이 있다.<sup>99)</sup>

이러한 절충주의의 대표자로 램지(Paul Ramsey)를 소개하고자 한다.<sup>100)</sup>

램지에 의하면 인간 생명의 가치는 궁극적으로 신이 인간에게 부여하고 있는 가치에 바탕을 두기에 인간 생명의 가치는 상대적 가치가 아니라, 신의 위탁물이고 그 존엄성은 취득한 것이 아니라 신의 섭리로 그에게 부여된 ‘양도받은 존엄성’이라고 한다.

그는 로마 카톨릭에서 제안하는 직접적인 낙태와 간접적인 낙태의 구별을 지지하며, 또한 산모의 생명과 태아의 생명 사이에 게재된 피할 수 없는 갈등(동등한 두 생명의 상충)의 경우에 있어서 단지 간접적인 유산만이 도덕적으로 합법적이라고 주장한다. 이 규칙의 유일한 예외로서 극히 드물긴 하지만 태아를 죽이는 직접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산모와 태아가 모두 생명을 잃을 경우에만 직접적인 유산이 허용되며, 이럴 경우 “피치 못할 유산은 도덕적으로 죄가 된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행위자는 자신의 행동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죽음을 의도하거나 원치 않았고, 다만 한 생명에 대하여 치명적인 위협을 가하지 못하도록 했을 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예컨대 루벨라(Rubella)<sup>101)</sup>를 앓고 있는 여성에게는 합법적인 낙태가 보장되어야 하며 이 상

---

98) T.샤논·J.디지아코모, 『생의윤리학(生醫倫理學)이란?』, 황경식·김상득 역, (서광사, 1988), 58쪽 참조.

99) 바루흐 브로디, 앞의 책, 164쪽.

100) Paul Ramsey, *The Patient as Person* (New Haven : Yale University Press, 1970), 67~72쪽을 요약하였음.

황에서 태아를 안락사 시키는 것은 도덕적으로 용납될 뿐 아니라 태아를 위한 도덕적 의무라고 주장 한다. 램지는 믿을 만한 백신이 발견되기까지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자신의 입장을 ‘잠정적 윤리’라고 부르고 있다.

---

101) 루벨라(Rubella)는 우리말 풍진(風疹)이라 불린다. 임신 초기 3개월간 임산부에게 나타나며, 임신 4-5주 사이에 루벨라를 앓을 경우 거의 모든 태아에게 선천성 기형이 생긴다.

## V. 결론

### 1. 연구 내용 요약

낙태문제는 태아의 한 극단에 인간의 출생이 있기에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인간의 정자와 난자의 수정체를 인간으로 볼 것이냐, 단순한 신체의 일부분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낙태는 법으로 금지해오다 이제는 낙태를 허용하는 쪽으로 바뀌게 되었다. 물론 낙태 허용을 주장하는 이들 모두 생명의 존중을 인정하지만 법에서 정한 낙태의 정당한 사유 때문에 낙태가 이뤄지지 않음이 큰 문제인 것이다.

낙태를 근본적으로 반대할 것인가?, 아니면 허용할 것인가?, 그 물음의 대답으로 태아에게 인간성(도덕적 지위)이 있는지의 일반적인 주장에 대해 알아보았다. 유전학파는 인간을 유전적 암호와 동일시해서 인간의 유전인자를 지닌 모든 존재를 사람으로 규정한다. 반면에 발달학파는 수정은 개별적인 인간에 대해 단지 유전적인 기초를 설정해 주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하나의 태아가 인간으로 생각되려면 어느 정도의 발달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사회결과학파는 태아가 인간인지 아닌지 결정 여부는 사회에 미치는 결과에 따라야 한다고 한다.

II장에서는 낙태 논쟁의 쟁점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낙태찬성자들은 인간성의 근거가 생물학적 인간 생명을 소유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국가 또는 사회가 정한 별도의 기준의 충족 여부라고 말한다. 태아가 언제부터 인간의 생명으로 인정되느냐에 따라 낙태가 정당화 될 수도, 그릇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수태 직후의 수정란부터 인간이라 규정한다면 낙태는 인간 살해 행위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시킬 수 없지만, 만일 출생을 인간 생명의 시작으로 본다면 낙태는 정당화 될 것이다. 그래서 출생이 인간 생명의 시작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그들은 인간됨을 위한 별도의 조건들로 이성, 의식 자아인식 등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이런 입장은 낙태에 관한 윤리적 문제의 논의에 핵심이 되는 인간 생명의 시점과

관련해서는 수정을 출생 후 한 단계 중 하나로 본다. 한편 낙태 찬성론자들도 태아에 관해 불안정한 인간, 또는 잠재적 인간이란 성경적 근거를 제시하여 낙태의 허용에 관한 신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Ⅲ장에서는 낙태 반대론자들이 주장한 생물학적 발달의 어느 단계에서 인간이 된다는 ‘마술적 순간’의 허구를 반박하여, 태아에게 인간성이 있음을 주장하는 낙태 반대론자들의 철학적, 과학적 신학적 근거들을 살펴보았다.

Ⅳ장에서는 기독교 특히 개신교 입장에서 낙태를 바라보는 관점이 어떠한가를 살펴보면서 낙태를 허용하려는 입장을 견지하는 자유주의적 주장과, 아직도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보수주의적 입장과 두 입장을 절충하여 여러 상황들을 대처하고자 하는 절충적 주장들을 살펴보았다.

결론에서는 낙태 논쟁의 초점 변화를 논하고, 이 논문을 준비하면서 얻게 된 논자의 결론으로 논문을 마무리하였다.

## 2. 낙태논쟁의 초점변화

낙태 논쟁에 있어서 초점이 바뀌고 있다.

이전에는 낙태 찬성론자들의 주장이 태아가 인간임을 인정하기를 거부함으로써 태아의 생명권을 부정하고 그 바탕 위에서 임신모의 사생활권 또는 자율권을 주장했었다. 그러나 이제는 태아의 인간성을 부정하던 것에서부터 태아가 인간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생명권이 갖는다 해도 임신모는 신체에 대한 자율권이 있기에, 태아는 인간이 아니라 임신모의 신체 일부이기에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태아에게 자신의 몸을 사용하게 해 줄 의무를 강요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낙태는 정당하다는 형태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낙태 논쟁은 권리



대 권리의 문제가 된다. 즉 핵심 쟁점이 태아가 인간이냐가 아니라 태아의 생명권이 우선하는가, 임신모의 신체권이 우선하는가 하는 문제가 되는 것이다.

임산모는 자신의 신체의 권리를 가지므로 자신의 자궁 내에 태아를 생존하게 할 의무가 없고,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자비의 행위인데, 어느 누구도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도록 강요당할 수 없기 때문에, 원치 않는 낙태는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이런 형태의 낙태권 요구는 1971년 톰슨(Judith Jarvis Thompson)에 의해 처음으로 제기되었는데 그녀는 태아가 생명권을 가진 인간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여성이 자신의 신체기관들을 태아의 생명유지를 위해 사용되도록 강제 당해야 함을 의미하지 않는다면 한 사람이 타인의 신장에 대한 권리가 없듯이 태아는 임신모의 자궁에 대한 권리가 없다고 주장한다.<sup>102)</sup>

태아가 인간임을 인정하면서 여성의 권리에 기초한 낙태권 주장의 다른 형태는 남성과 여성의 동등성에 근거하고 있다.<sup>103)</sup> 이들은 여성에게도 남성들이 가진 행동의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임신이 여성에게 많은 부담을 주기 때문에 남성들이 가진 행동의 자유가 여성에게도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임신이 여성에게 많은 부담을 주어 사회적 진보에 있어서 남성에게 이점을 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은 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법의 동등한 보호를 받는다는 헌법적 원리에 의해 낙태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낙태의 문제가 태아의 생명에서 여성의 신체 자율권으로 옮겨가고 있음과 함께 생명의 경시가 확대될 것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 3. 생명존중을 지향하며

논자는 논문을 준비하면서 낙태에 나타난 생명 경시 풍조, 성 윤리의 부재 현상,

---

102) Judith Jarvis Thompson, *A Defense of Abortion* (Philosophy and Public Affairs, 1971), 46~47쪽 요약함.

103) 신성자, 앞의 책, 69-70쪽.

여성 신체에 대한 자율권 주장, 물질 만능주의, 또 이런 사상들을 은연중에 부추기는 구조적 모순이 세계고통의 현상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경우에도 ‘낙태는 살인이다’는 주장과 ‘낙태는 이혼과 마찬가지로 선택적인 행위일 뿐이다’라는 생명우선론자와 선택우선론자가 팽팽히 맞서고 있음도 보았다.

낙태를 찬성하는 선택우선론자들도 태아를 해치거나 생명을 빼앗는 것을 찬성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낙태를 찬성하는 자들도 ‘낙태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이는 매우 어려운 선택이다. 임산부는 자신이 원해서가 아니라 필요하기 때문에 낙태 한다’고 말하고 있다.<sup>104)</sup> 낙태를 반대하면서도 어떤 상황에서는 낙태가 허용된다고 생각하는 소위 ‘상황 낙태’는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다.

그러나 논자는 생명우선론을 주장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낙태를 피함이 좋을 듯 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을 통해 본 논문의 끝을 맺고자 한다.

첫째, 강간이나 근친상간의 경우 낙태가 정당하다지만 낙태만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 수치감, 분노와 증오심을 모두 없애주지 못할 것이기에 낙태를 반대한다. 선한 목적이 악한 수단을 정당화해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울러 피해자가 갖고 있는 고통과 문제는 낙태에 의해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불임의 10%가 첫 아기의 낙태에 있다고 한다.<sup>105)</sup> 그리고 심리적으로 낙태가 문제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낙태 후 죄책감과 우울증 등 더 큰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며 평생 태어났을 뻔한 그 아이에 대한 생각을 떨쳐 버릴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리처드 윈터(Richard Winter)는 그의 책에서 칼뱅(J. Calvin)이 출애굽기 21장 말씀을 주석한 것을 소개하고 있다. “태아는 비록 어머니의 태에 들어있지만 이미 인간 존재이다. 사람을 들판에서 죽이는 것보다 집에서 살인하는 것이 더 흉악하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집은 그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이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태중에서 태아를 죽이는 것은 더욱 잔인하다.”<sup>106)</sup>하였다. 그렇다 강

104) 김종배 “낙태, 그 시작과 끝”, 『낙태』(두란노 서원, 1990), 19~20쪽.

105) 신성자, 앞의 책, 72쪽.

간이 들에서 죽임을 당한 것에 비유된다면, 낙태는 가장 안전한 피난처에서 이뤄지는 더욱 잔인한 방법이라 생각되기에 논자는 낙태를 반대한다.

둘째, ‘장애아 출산을 막아 낙태함이 고생을 면해 주는 사랑의 행위’라고 낙태찬성자들이 주장하였지만, 장애 문제는 삶의 ‘존엄성’이 아니라 삶의 ‘질’ 문제이다. 심한 장애자의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누가 단언할 수 있으며, 과연 누가 그 문제를 결정지을 수 있겠는가? 결국 삶에 대해 질을 부여하고 살 가치가 있도록 도와줌이 그들의 이웃인 우리의 몫이다. 장애아의 생명도 인간의 생명이기애 동일하게 소중하다. 비록 원치 않음에 의해 태어났다 하더라도 바로 장애자의 삶의 질은 우리의 손안에 달려있다. 논자는 성경에 “살인하지 말라”는 구절이 ‘타인의 생명을 보호하라’, 즉 어린 태아의 생명까지도 보호하라는 의미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더구나 신앙 양심에 안락사, 태아실험, 낙태, 영아살해 등은 분명히 죄라는 거리낌을 떨쳐버릴 수 없고, 다른 모든 죄와 마찬가지로 고의적으로 범한 죄라는 것을 떨쳐버릴 수 없어서 논자는 낙태를 반대한다.

셋째, 임신모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이 위협받는 경우 ‘치료적 낙태’가 정당하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러한 주장은 모든 경우의 낙태를 다 허용하자는 것과 같다 하겠다. 미국과 영국에서 합법적인 낙태를 받는 여성의 80-85%가 이 근거를 사용한다는데, 이런 이유로 낙태를 받는 “대부분의 여성들은 정신과 의사의 치료하에 있지 않으며, 대개는 정신과적으로 정의될 수 있는 질병을 갖고 있지도 않고, 새로운 한 아이의 출생이 가져 올 사회활동, 생활방식, 경제면에서의 희생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등으로 인한 우울 정도가 대부분이다”라고 지적한 프라임(John M. Frame)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논문 앞에서 살폈듯이 우리나라 낙태의 원인이 모자 보건법에 의한 정당한 조건인 경우는 거의 찾아 볼 수 없었다. 한편 낙태로 인한 죄책감과 불안, 후회 등으로 더 큰 정신적 혼란과 고통을 받는 낙태증후군을 낙태경험자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산모의 건강에 대한 위협이 실재한다고 해도 그것이 그녀의 생명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면 낙태는 문제의 해결이

106) 리처드 윈터, 앞의 책, 90~93쪽.

될 수 없음을 알고, 낙태 수술 자체가 산모에게 주는 여러 가지 부작용과 합병증을 유발한다는<sup>107)</sup> 사실을 알기에 논자는 낙태를 반대한다.

넷째, 우리나라의 판례와 학설은 거의 ‘태아가 사람이다’라는 데에 일치하고 있기에 논자는 낙태를 반대한다.

대법원 판례는 “인간의 생명은 잉태된 때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회임된 태아는 새로운 존재와 인격의 근원으로써 존엄과 가치를 지니므로 그 자신이 이를 인식하고 있던지 또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지에 관계없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함이 헌법(憲法) 아래 국민일반이 지니는 건전한 도의적 감정과 합치되는 바이다”<sup>108)</sup> 라고 판시하고 있다.

헌법학자들 역시 태아가 사람이라는 데에 동의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권영성 교수는 “생명이 수태(受胎)로써 시작되는 것이라면 태아도 생명권의 주체가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하였고, 서울대학교 김철수 교수도 “기본권능력은 민법상의 권리능력보다도 광범위하여 사자(死者)와 태아(胎兒)에게도 기본권능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하였다. 또한 연세대학교 허영 교수는 “생명권이 보호되는 헌법질서 내에서는 이른바 '보호가치 없는 생명', '생명가치 없는 생명'이라는 개념이 정책결정의 동인(動因)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하였다.<sup>109)</sup>

이와 같이 우리나라 헌법적 시각을 보면서 논자는 낙태를 반대한다.

---

107) Winter, 앞의 책 59-61쪽. Walki, 앞의 책, 142-143쪽.

- 낙태수술 100,000건당 사망이 미국은 8명, 영국은 30명, 스웨덴 39명, 덴마크 41명이었다 함.

108) 대법원 판례-(1985.6.11. 84도 1958).

109) 권영성, 『헌법학원론』, (서울: 법문사, 1999), 371쪽.

김철수, 『협법학 개론』, (서울: 박영사, 1999), 269쪽.

허영, 『한국헌법론』, (서울: 박영사, 1998), 334 ~ 335쪽.

## 참 고 문 헌

### 1. 단 행 본

- 구영모, 『생명의료윤리』, 서울: 동녘, 1999.
- 권영성, 『헌법학원론』, 서울: 법문사, 1999.
- 김종배, 『낙태, 그 시작과 끝』, 서울: 두란노서원, 1990.
- 김중호, 『의학윤리란 무엇인가?』, 부산: 바오로 딸, 2003.
- 김철수, 『헌법학 개론』, 서울: 박영사, 1999.
- 맹용길, 『성경적 입장에서 본 인공유산의 문제』, 서울: 두란노서원, 1990.
- 박원기, 『기독교 사회 윤리 이론과 실제』, 서울: 이화여대출판부, 1995.
- 신성자, 『낙태에 대한 성경적 과학적 고찰』, 서울: 그리심출판사, 1999.
- 한국가톨릭의사협회(편), 『의학윤리』, 서울: 수문사, 1984.
- 한춘기, 『신학적 윤리적 입장에서 본 인공유산』, 서울: 기독교교육연구소, 1994.
- 허영, 『한국헌법론』, 서울: 박영사, 1998.

### 2. 번 역 본

- 노르만 L. 카이슬러, 『기독교 윤리학』, 위거찬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2.
- 니켈 케머런·파멜라 심스 공저, 『낙태: 위기에 처한 기독교 의료윤리』, 헷불성경연구소 역, 서울: 헷불성경연구소, 1993.
- 바루흐 브로디, 『응용윤리학』, 황경식 역, 서울: 종로서적, 1988.
- 『응용윤리학』, 성인경 역, 서울: 그리심출판사, 1999.
- 프란시스 웨퍼, 『낙태, 영아살해, 안락사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 김기찬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5.
- J. C. Willke 부부, 『낙태』, 정길용 역, 서울: 낙태반대운동연합, 1997.

Norman Geisler, 『기독교 윤리』, 위거찬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2.

Peter Singer, 『실천윤리학』, 황경식·김성동 역, 서울: 철학과 현실, 1994.

Richard Winter, 『사람입니까?』, 성인경 역, 서울, 일지각, 1993.

### 3. 주석류

A. 바이저, 『국제성서주석(시편 I)』, 김이곤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4.

카일 델리취, 『구약주석 읍기(하)』, 김득중 역, 서울, 기독교문화협회, 1985.

카일 델리취, 『구약주석(시편 中)』, 최성도 역, 서울: 기독교 문화협회, 1984.

Gerhard Von Rad, 『국제성서주석(창세기)』, 한국신학 연구소 역,

서울: 한국신학 연구소, 1981.

H. C. 류폴드, 『반즈성경 주석(전도서)』, 명종남 역, 서울: 크리스찬서적, 1992.

H. 링그렌, W. 침멀리 공저, 『국제성서주석 17(전도서)』, 한국신학 연구소 역,

서울: 한국신학 연구소, 1994.

John Durham, 『국제성서주석(출애굽기)』, 한국신학연구소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1.

존 스타트, 『시편 강해』, 홍병창 역, 서울: 엠마오, 1994.

존 칼빈, 『구약성경 주석8(시편)』, 존 칼빈 성경주석 편찬위원회 역,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80.

마르틴 노트, 『국제성서주석(출애굽기)』, 한국신학연구소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4.

노르만 L. 카이슬러, 『기독교 윤리학』, 위거찬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2.

### 4. 간행물

- 이영란, 『아세아 여성연구 제25집』,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고찰”,  
서울: 숙대 아시아 여성문제 연구소, 1986.
- 한중식, 『숭실대학교 논문 제23집』, “낙태논쟁-기독교 윤리적 접근”,  
서울: 숭실대학교 인문과학 편, 1993.

## 5. 논문

- 강신철, “낙태에 관한 기독교 윤리적 연구”, 석사학위 논문,  
장로회 신학대학 신학대학원, 1999.
- 문인찬, “인간 생명에 관한 윤리 신학적 고찰”, 석사학위 논문,  
감리교신학대학 신학대학원, 1989.
- 양승옥, “낙태 방지를 위한 노력”, 석사학위 논문,  
광주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2001.
- 우금숙, “낙태에 대한 윤리적 고찰”, 석사학위 논문,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1995.
- 정성재, “반낙태에 관한 한국 기독교의 바람직한 운동방향”, 석사학위 논문,  
고신대학교신학대학원, 1996.
- 조남훈, “성감별과 여아낙태”, 한국 보건사회 연구원, 1995.
- 한국 형사 정책 연구원, “낙태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 연구원, 1991.
- 황성하, “구조악으로 본 낙태”, 석사학위 논문,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2001.

## 6. 외국 문헌

1. Archibald Sutherland Ducan, Reginald Dunstan, and Richard Burkewood  
Welbourn(ed.), *Dictionary of Medical Ethics*, London : Darton, Longman &

- Todd Ltd, 1981.
- British Medical Journal, 1980.1.26, Winter.
- Christianity Today, February 2003.
- David Atkinson, *The Message of Genesis 1-11*, IVP, 1990.
- Daneil Callahan, *Abortion : Law, Choice and Morality*,  
N. Y.:Macmillan Company, 1970.
- Gordon Preece, ed., *Rethinking Peter Singer*, Inter-Varsity, 2002.
- H. Thielicke, *Theological Ethics*, Vol.III,  
Michigan : William Publishing Company, 1979.
- John T. Noonan, "An Almost Absolute Value in History", Cambridge, 1970.
- Joseph Fletcher, *Station Ethics : The New Morality*,  
The Westminster Press, 1966.
- Paul Ramsey, *The Patient as Person*,  
New Haven : Yale University Press, 1970.
- Peter Singer, *Rethinking Life and Death : The Collapse of Our Traditional  
Ethics*, St. Martin's Griffin, New York, 1994.
- Thomas A Mappes, Jane S. Zembaty, *Social Ethics*  
San Francisco : Mcgraw-Hill Book Company, 1982.
- William J. Dumbrell, *Covenant and Creation*, Nelson, 1984.
- Schaeffer, Francis A. Whatever happened to the human race?  
Westchester, IL : Crossway Books, 1982.

## 7. 기타자료

- 「기독교신문」, 2003, 9, 3.
- 「조선일보」, 2000, 11, 27.
- 「신·구약 성경전서」, 서울: 아가페출판사, 2003.



# Abstract

## A study on the Ethics of Abortion from the Christian Standpoint

Kang, Nyon-Won

*Department of Ethical Thoughts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unsan National University*

**Kunsan, Korea**

The key point of argument of ethical controversy relating to the human life is the favoritism of human life which empathizes on the priority of individual life and the favoritism of individual choice of human right which empathizes on the public benefit.

The people who support the principle of personal choice insist that this society should allow the abortion, euthanasia, in Vitro Fertilization-Embryo Transfer, an embryo examination, genetic engineering, a sexual reproduction in order to up grade human happiness and advancement of human-life quality.

The abortion should be carefully considered and concluded because it could be applied in the justifiable reason of killing an infant and euthanasia.

On the basis of pro-abortion and anti-abortion there are three schools (the abortion is very important matter in the aspect of humanity) as follows; First, the genetic school views that the time of the formation

human being is the creation of human gene. Second, the development school views that, not the time of creation of human gene, but allowing the embryo to have certain period of time to develop him/herself in order to be accepted as a human being. Third, the school of social consequences view that human being could be considered by virtue of the result that how much an individual affect in this society.

In respect to child's humanity in the reformed faith perspective on abortion, there is a conserved view of accepting the child's life from the point of conception and the nature of deciding the unborn child as one of a human being is dependent on the rational physical functionality. One side of assertions is compromised by valid reasoning and the other extreme is supported by opposing the idea of abortion just before the parturition.

In conclusion, abortion is not the way of solving physical and emotional problems and that up till now judicial precedence and acceptances on the view of abortion of Korean people are still solidified as 'fetus is one of a human being'. With these supporting realities one can strongly oppose abortion.